신안보 위협과 동북아 협력프레임워크

Ⅰ.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Ⅱ. 인간안보, 개념과 논란
Ⅲ. 무엇을 지켜야 하나? 국가의 존재 이유
Ⅳ. 팬데믹 도미노는 이제 시작
Ⅴ. 신안보의 부상
Ⅵ. 국제적 협력과 연대
Ⅶ. 유럽의 안보협력체, OSCE
Ⅷ. 동북아 안보협력체 미성숙
Ⅸ. 역내 신안보협력프레임워크 창설

2021. 6. 24.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조 경 환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 코로나 팬데믹은 전쟁 이상의 공포와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 명징

  - 세계 1.8억명 확진, 389만명 사망. 최다 사망 미국은 61.7만명 희생돼(6.21 기준) 두 차례 세계대전과 한국전·베트남전 전사 미국인 합계(66만명) 근접

- 1990년대 부터 진행되어 온 안보개념의 전이와 확장은 코로나19의 극적 사건이 점화 계기(triggering point)가 되어 더 자명해지고 집중적 등장

- 전통적 위협 속에 비전통적 위협 동시 출현, 공공주목(public attention) 및 자원획득 경쟁

- 보호 대상: (전후) 국가단위 영토와 국민 ➡ (탈냉전) 인간, 인간 존엄성 보장

- 위협 대상: 전통적 군사위협 ➡ 비전통적 포괄안보 위협, 신안보 위협

  - 비국가 행위자 및 비군사부분으로 확장, 안보대상의 추가

  - 군사력 의존 영토 확장: 리스크 크고 실익 낮아 ➡ 기술력, 경제력 다툼

  - 다양한 위협에 대응한 다자주의, 개별국가 초월 국제기구 부각

인간안보, 개념과 논란

-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 최초 도입
- 내전과 난민, 빈곤이 국제사회의 주요 아젠다, 유엔의 광범한 인도적 개입 주장
- 안보 대상을 비군사영역까지 확장, 인간이 포함된 조직이면 전부 안보 대상

  - 안보개념: "기아·질병·범죄·억압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안전, 가정·직장·공동체·환경의 일상에서 갑작스럽고 고통스런 파괴로 부터의 보호"

- 규범: 공포(물리적 폭력과 군사 위협)로부터 자유, 결핍(빈곤, 기아)으로부터 자유
- 인간안보의 7개 영역: 경제, 식량, 보건,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 4대 특성: 보편적 관심, 상호의존성, 조기예방 가능, 사람중심
- 안보 주체(국가 역할)의 급진성, 비현실성 논란: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서의 국가(인도적 개입) vs. 국가의 행위자 주권(내정불간섭)

- 안보개념의 긴급성, 중요성 약화 논란: 잠재 위협 vs. 현실 위협(즉각적 대처 필요)

무엇을 지켜야 하나? 국가의 존재 이유

- EU: 2000년초 IT 기술 초연결사회 도래에 따른 군사·비군사 하이브리드 위협 주목
- 러시아,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기점 사이버공격과 심리전 (2016년 미 대선, 영 브렉시트 투표, 2017년 이후 유럽 국가들의 선거 지속 개입)
- 테러, 생화학·핵 위협, 국가기반시설 사이버 공격 및 해킹, 허위조작정보 유포, 영유권 분쟁, 경제 압박, EU 주변 내전, EU 내부의 정치 개입, 무통제 이민, 국제질서 재정립, 기후위협

- 미 바이든 행정부가 잠정국가안보전략(NSS) 지침(3.3)에 적시한 새 도전요인
- 사이버안보 최우선, 기후 위기, 감염병, 신기술 · 디지털 위협, 세계경제 마비, 장기 인도적 위기,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심리전 통한 국론분열과 국가균열, 국제규범 파괴
- 미 NIC 미래예측『글로벌트렌드 2040』(4.8): 코로나팬데믹은 과거 위기를 다루던 제도로는 새 도전요인 관리에 적합치 않다는 세계질서의 약점 노출 평가
- 팬데믹 대응 불만, 민족주의 득세, 민주주의 약화, 인종혐오범죄, 사회파편화 및 시민결속 훼손, 기후위기, 기술혁명, 소득불균형, 신뢰 약화, 자원제약, 경제악화, 테러

- 중국: '2021년 양회'(3.4-11), 비전통적 안보 중시 기조 천명
- 경제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금융안보 강조, 국가 간 방역협력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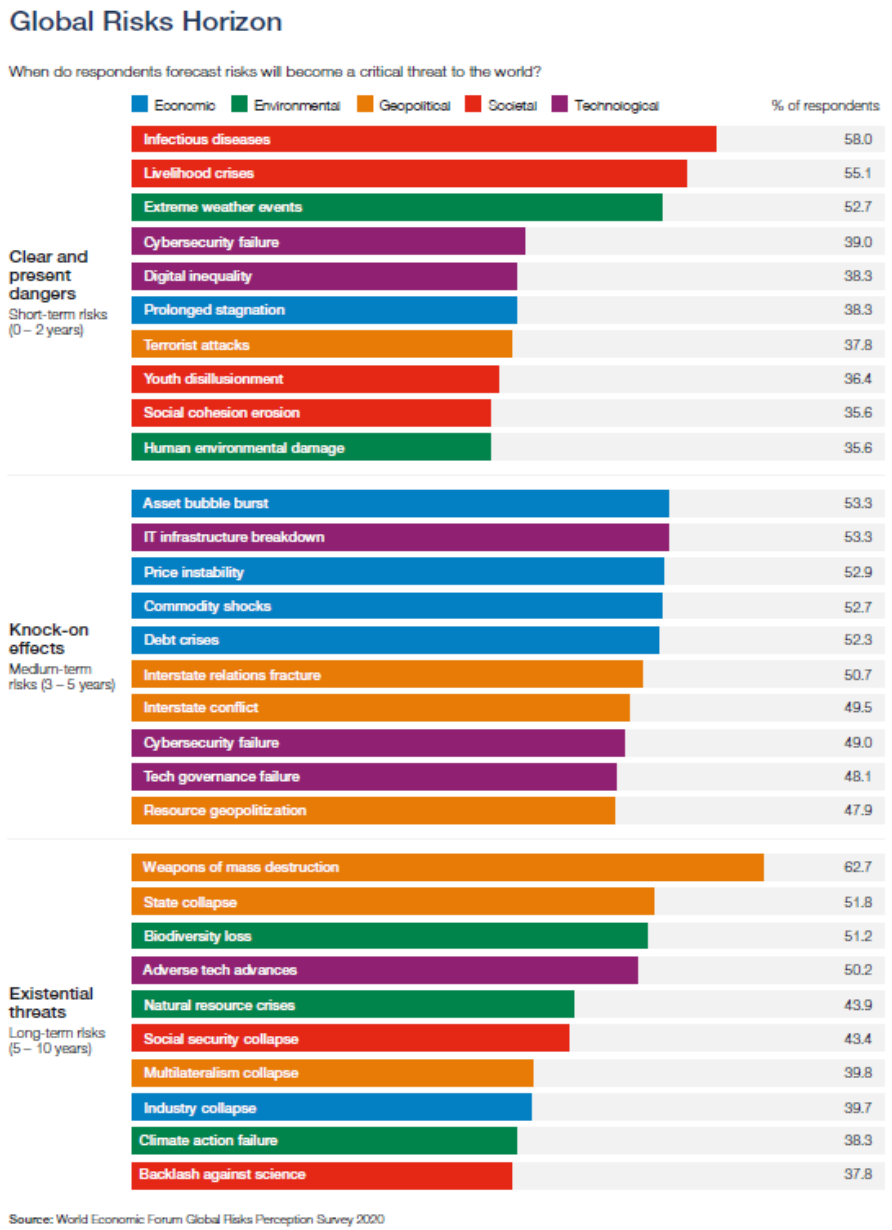
팬데믹 도미노는 이제 시작

다보스포럼 '2021글로벌리스크' 서베이 결과

1 단계 (2년 이내 단기 분명하고 현존 위협)
감염병, 생활위기, 극단적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실패, 디지털 불평등, 장기스태그플레이션, 테러, 청소년 환멸, 사회연대 침식, 인간환경적 손상

2 단계(3-5년 중기 파장, 팬데믹 도미노)
자산버블 붕괴, IT인프라 고장, 가격불안, 상품 쇼크, 부채위기, 국가관계 분절 · 갈등, 기술 거버넌스 실패, 자원의 지정학화

3단계(5-10년 장기 실존적 위협)
WMD, 국가 붕괴, 생물다양성 손실, 기술 역기능 진전, 자연자원 위기, 사회안보 붕괴, 다자주의 붕괴, 산업 붕괴, 기후대응 실패, 과학 반감



신안보의 부상

- 세계화, 정보화 역기능으로 발생한 국가 위협 중 안보 함의를 가지고 등장
- 탈냉전 이후 안보개념 확대의 일환: 안보는 사회가 결정하고 시대가 결정, '안보는 구성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 (Copenhagen School)
- 군사·외교의 전통안보와 달리 새로운 비전통적, 비군사적 도전요소들에 대처해 국가의 생존과 국민 생계 보호
- 침해 대상이 개인일지라도 그 규모가 광범하고 심각하면 국가 위협으로 간주

- 잠재성(불가측성), 연결성, 초국가성이 특징
- 눈에 보이지 않고 의도성 없으며, 사이버공간이 주무대

-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전통적 위협이 중첩되어 모호하게 출현
-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늘어난다고 하여 전통적 위협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동시 존재

국제적 협력과 연대

- 초국경적 위협에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 수반은 당연
- “코로나 이전 193개국이 각각의 배에 살고 배마다 선장, 선원이 있었으며 배끼리의 충돌 막을 규칙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78억 명이 하나의 배에 타고 193개 캐빈에 사는 상황”(키쇼어 마부바니)
-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당시 미국 중심 국제연대 작동
-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조기경보, 방역, 백신에서 민족주의 만연. 미중 갈등, 다자협력의 필요성과 패권경쟁 충돌, 협력은 레토릭
- 신안보는 연성안보 아젠다, 국제협력 도출의 좋은 기제
- 중견국가, 지표국가로서 국익 관점에서 신안보 공동대응 기치로 “중개, 연대, 규범 " 외교의 지평을 넓혀갈 소재

유럽의 안보협력체, OSCE

- 유럽 공동안보 문제 다룬 다자적 협력의 전형, 헬싱키의정서
- 1975.8.1 유럽 35개국이 서명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
- 10대 지도원칙(Helsinki Decalogue), 체결국의 기본 의무사항과 이행 조치 규정

  - 주권 평등과 고유한 권리 존중,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국경 불가침, 내정 불간섭, 타국 종속시킬 목적의 경제 제재 금지 등

-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기 행동지침
- 1995년 세계 최대 안보협력제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상설
- 유럽 체제의 평화유지에 결정적 기여, 57개국으로 확대

동북아 안보협력체 미성숙

- 신안보 위협은 나라와 진영 불문, 혼자서는 안전할 수 없음
- 처칠, 2차 대전 때 공동적 히틀러 앞두고 공산독재자 스탈린과 협력
- 동북아에서는 왜 안보협력체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일까?
- 역내 경제적 밀도 높고, 역사문제에 기반한 민족주의 득세
- 세계 최대, 최고의 군사력 집중 및 패권경쟁 심화
- 동북아의 정체성 미정립
- 지정학적 북미국인 미국과 유럽국인 러시아가 들어와 혼재
- 역내 단위 국가들 간 우호적 경험 부족 및 불안정한 진영대립 고착화
- 한미일 남방 삼각체와 북중러의 북방 삼각체 대립이 역내 협력기제의 성숙 방해
- 지정학적 대결구도 강화는 역설적으로 안보협력제 출현 요구 강화

역내 신안보협력프레임워크 창설

- ‘신안보 협력 동북아 6개국 서밋’ 프레임워크(동북아판 OSCE) 설계 제안
- 정상급 회의체가 어렵다면 장관급, 차관급 회의체로 시작 가능
- 처음부터 모두 참여하는 다자적 회의체 보다 핵심 국가들이 합의해 점차 다자로 가는 접근이 현실적
- 한·중·일 삼국정상회의 등 기존의 회의체 모체
- 먼저 한일관계 및 삼국 정상회의 정상화 후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등 순차 초대
- 남북·미·중·일·러 6개국 참여, 지리적 관점에서 몽골 포함 7개국 가능
- 미중 전략경쟁 색채가 옅은 글로벌 공공재 중심 아젠다 설정
- 초기 팬데믹,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 신안보 사안 논의, 신뢰가 쌓아지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
-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그룹’ 출범(2020.5.12) 주도, 한중일 보건장관 코로나19 협력 공동성명(5.15) 채택, 2020.9월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시 제안했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12.29) 등 활용. 끝.